

서울시민 73% “시내 쓰레기통 부족… 추가 설치해야”

서울시 거리 청결상태 만족 83%
쓰레기통 설치 대수 ‘적은 편’ 73%
분리수거 쓰레기통 2중 선호도 높아

〈서울시내 가로쓰레기통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 관련 조사 결과〉

방법	응답비율(%)
환경미화원 투입을 통한 빈번한 청결관리	37.7
시민의식 제고	53.3
가로 쓰레기통 없애기	5.0
기타	4.0

/서울시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가로쓰레기통이 필요한데도 현재 시내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충분하지 않게 설치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8~31일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3112명을 대상으로 가로쓰레기통 이용 및 개선에 관한 설문을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전체 응답자의 82.8%는 서울시내 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다중이용시설 등 거리에 설치된 가로쓰레기통

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 가운데 69.1%는 ‘가로쓰레기통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항상 깨끗함 6.3%·대체로 깨끗함 62.8%)고 했다. 나머지 28.3%는 ‘대체로 더럽다’, 2.7%는 ‘항상 더럽다’고 응답했다.

평소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을 잘 하나는 물음에는 ‘가급적이면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한다’는 응답 비율이 55.7%로 1위를 차지했다. ‘항상 분리 배출한다’ (36.3%), ‘대체로 분리 배출을 하지 않는다’ (6.8%), ‘전혀 분리 배출하지 않는다’ (1.2%)가 그다음이었다.

분리배출을 못하는 이유로는 ‘분리 배출을 위한 쓰레기통이 없어서’ (52.7%), ‘버리는 쓰레기가 재활용인지 일반쓰레기인지 잘 몰라서’ (26.9%), ‘재활용과 일반쓰레기통이 비슷하게 생겨 구분하기 힘들어서’ (13.9%), ‘분리배출하기 귀찮아서’ (4.4%) 등이 꼽혔다.

서울시 전방의 거리 청결상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7%(매우만족 8%·대

체로 만족 74.7%)가 ‘만족한다’고 했다. ‘대체로 불만족’은 15.1%, ‘매우 불만족’은 2.1%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시내 거리에 설치된 쓰레기통의 대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73.3%가 ‘적은 편이다’고 답했다. 반면 ‘적정하다’와 ‘많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5.2%, 1.5%에 그쳤다.

응답자의 75.7%는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14.7%, ‘잘 모르겠다’는 9.5%였다.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시미관 저해의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서울시내 가로쓰레기통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시민에게 물었다. 응답자들은 ‘시민 의식 제고’ (53.3%)와 ‘환경미화원 투입을 통한 빈번한 청결관리’ (37.7%)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로쓰레기통 없애기’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이는 5%뿐이었다.

또시가서울시내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때 한 장소에 두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의 종류(개수)로 가장 적절해 보이는 조합을 고르게 한 결과,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 쓰레기통을 한꺼번에 두는 2중 설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4중(일반쓰레기+플라스틱+캔·유리+기타 재활용 쓰레기통) ▲3중(일반쓰레기+플라스틱+기타 재활용 쓰레기통) ▲1중(일반 쓰레기통 하나만 설치)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골목창업 원스톱 지원 ‘상권혁신아카데미’

서울시,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교육생 1명당 1200만원 투입

서울시는 5일부터 외식·디저트업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 교육을 실시하는 상권혁신아카데미의 문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상권혁신아카데미(성동구 성수동 13-277)는 수업이 운영되는 강의실과 실습을 위한 조리실·바리스타실·베이커리실, 다양한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교육생 1명에 5개월간 투입되는 교육비는 1200만원이다. 골목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인큐베이팅 공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카데미 강의는 7월 5일부터 5개월 동안(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식업, 커피·디저트류 예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4~5월 관내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를 상대로 공모를 벌여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수강생을 선발했다. 교육생은 경험과 아이디어로 동네 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혁신적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위주로 선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아카데미 커리큘럼은 크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뉜다. 이론교육은 상권분석, 사업계획 수립, 임대차 계약, 상표권등록방법, 배달앱 활용, 재고 관리, 홍보물 제작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됐다. 실습교육은 건물 5층에 마련된 실습 공간에서 이뤄진다. 가스화구·오븐이 설치된 ‘음식조리실’과 반죽기·발효기·오븐을 갖춘 ‘베이커리/디저트실습실’, 그라인더·커피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커피실습실’ 등 전문 장비가 마련된 공간이다. 개인연습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꾸몄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이론·실습교육을 마친 수강생에게 ▲인턴십 기회 ▲창업자금 융자(5000만원, 연 1%대 저리) ▲일대일 창업컨설팅 ▲정책자금 연계 ▲서울시 중합지원사업 참여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기후에너지정보센터 내부 모습.

/서울시

“방탈출 게임으로 기후위기 공부해요”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운영

서울시 기후에너지정보센터(서울시 중구 덕수궁로15)는 여름 방학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방탈출 게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위기 방탈출 게임은 초등학교 6학년 과학 교과서의 ‘에너지’ 단원과 연계해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에너지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후위기 방탈출

은 ‘게임’과 ‘교육’의 합성어인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놀이와 학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게임 참여자는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마구쓰’와 퀴즈대결을 펼치며 대정전을 막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게임은 정보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활용, 가상현실에서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의 매력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

42개국 854점 접수
대상팀에 1000만원

서울시는 ‘서울의 매력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총 40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역사, 문화, 관광, IT기술 등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발굴해 전세계에 알리고자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련 공모를 벌였다. 해당 공모전에는 총 854점(42개국)의 작품이 접수됐다.

대상작품은 필리핀 소키(ThOKI)팀의 ‘서울 포 서울(Seoul for soul)’이다. 소키팀은 필리핀 연인이 DDP, 남산, 서울역, 한강, 한양도성 등 서울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명소들을 여행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이들은 “서울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도시”라고 서울을 소개했다. 대상 수상팀에겐 서울특별시장과 100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시는 예비심사(6월 9일), 시민 온라인 투표(6월 14~18일), 영상·사진 분야 전문가 심사(6월 23일)를 거쳐 시민 온라인투표(20%)와 전문가 심사(80%)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수상작을 가렸다.

시는 수상작을 세계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중 시는 온라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소감을 들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서울시는 7월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한 끼)를 종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6000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나 서울지역 외식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코로나19 상황에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분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결식아동 아동은 총 3만1000여명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5일 (월)
음력 : 5월 26일

수도권 날씨
21~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20/28, 동두천 19/27, 가평 19/28, 파주 19/27, 서울 21/28, 양평 20/28, 인천 21/26, 수원 21/27, 용인 21/27, 평택 20/29

해돋이 / 05:16 | 해질 /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국, 유엔무역개발회의서 ‘선진국’ 격상… 설립 57년 만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희박
/사진 뉴스스

▲중국, ‘지린1호’ 등 인공위성 5기 실은 창정(長征) 운반로켓 발사
▲‘코로나로 50만명 사망’ 브라질 보유 소나루 탄핵 시위 확산



▲테슬라, 반도체대란에도 2분기 20만대 인도… 역대 최대
▲필리핀 남부서 85명 태운 군수송기 추락… ‘최소 40명 구조’
/사진 뉴스스